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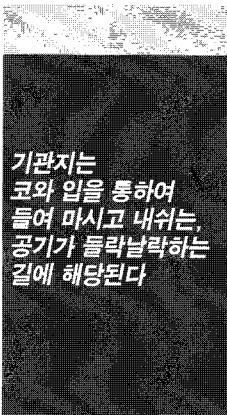


인내심이 필요한 기관지 천식

박성학

대한결핵협회 학술이사 · 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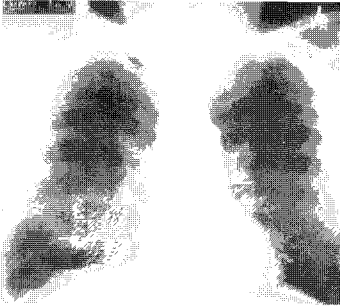
기관지 천식이란 말 그대로 기관지에 생기는 병이다. 인체는 산소가 5분만 공급 되지 않아도 매우 위험하다. 우리 몸의 호흡기는 크게 기관지와 폐로 되어 있는데, 기관지는 바로 코와 입을 통하여 들어 마시고 내쉬는,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길에 해당된다. 폐는 기관지 끝에 풍선주머니 즉 허파파리로 이루어진 기관이고 가스교환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가 적은 정맥혈이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로 바뀌게 된다.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좁아져서 공기가 잘 들락날락하지 못하여 몹시 숨이 차고, 숨실 때마다 '가랑가랑' 또는 '쌩쌩' 소리(천명음 또는 천식음)가 나는 질환이다. 환자에 따라 가래가 많거나, 기침만 하거나 또는 호흡곤란만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환자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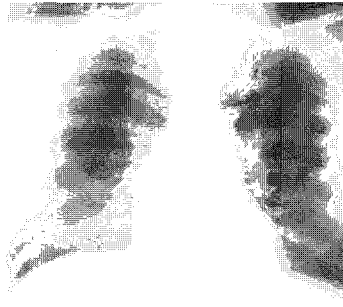
기관지천식을 의심하게 하는 증상은 쌩쌩거리는 숨소리가 있고, 기침, 숨찬 증상이 있는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악화요인(개인마다 다름)에 노출되었을 때 심해지고 오래가면 천식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침과 호흡곤란, 쌩쌩하는 숨소리(천명)가 있을 때 천식을 의심하여야 하나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천식은 아니다. 천식으로 혼돈 될 수 있는 질환으로 심부전, 이물질 흡인, 위식도 역류, 기관지 결핵과 기관지 종양, 세기관지염 등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상의

기관지천식 흉부 엑스선 소견

호흡곤란시



안정시



치료전 심한 호흡곤란이 있을 때(좌) 들어마신 공기의 배출이 안되어 안정시(우) 보다 폐의 과팽창 소견이 보임

해 봐야 한다. 기관지천식 진단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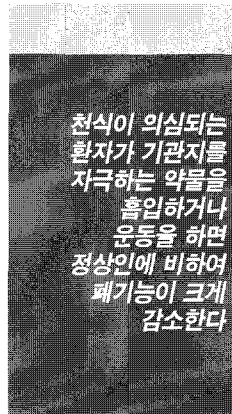
(1) 폐기능 검사

천식환자의 기관지는 정상인에 비하여 예민하여 자극을 받으면 기관지가 좁아진다. 검사를 통해 기관지가 얼마나 좁아져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천식이 심할수록 기관지가 많이 좁아지게 된다. 또한 기도 확장제를 흡입하여 좁아진 기관지가 충분히 넓어지는가를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토대로 환자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증상의 호전을 눈으로 확인하여 자신의 질병 상태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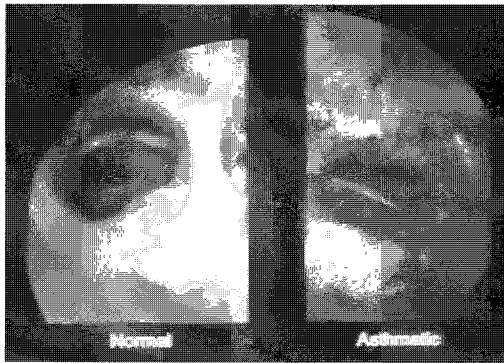
폐기능 검사 방법으로는 병원에서 폐기능 검사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이보다는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집에서 수시로 측정하여 증상의 악화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호기유속측정기가 있다.

(2) 기관지 과민 반응 검사

천식 환자의 경우 폐기능이 정상인 상태에서도 기관지는 매우 예민해져 있다. 따라서 천식이 의심되는 환자가 기관지를 자극하는 약물을 흡입하거나 운동을 하면 정상인에 비하여 폐기능이 크게 감소하며, 천식의 증상들이



기관지경 소견



(좌)는 정상기관지이고, (우)는 기관지천식에서 기관지 수축으로 좁아진 기관지

동시에 나타나게 된다. 이런 특징을 이용하여 천식 진단에 이용되는 중요한 검사 방법을 비특이적 기관지 유발 검사라고 한다. 그러나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설에서 천식 전문의사의 감시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3)혈액검사

많은 천식 환자의 혈액 내에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면역글로불린 E라는 항체와 호산구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들은 천식의 확인 및 경과 추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천식의 진단과 경과 관찰시 이용된다.

(4)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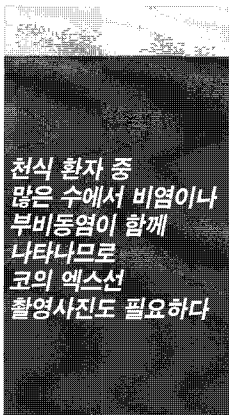
천식으로 진단이 되면 천식을 일으킨 원인이 주위 환경에 있는가를 찾아야 한다.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는 이때 실시되는 가장 기본적인 검사이다. 이 검사로 환자의 병력에서 의심되는 원인 물질을 확인하며 또 병력에서 알아내지 못한 원인 물질을 찾는 데도 이용된다.

그러나 피부반응검사로 천식의 모든 원인을 찾아 낼 수는 없다. 따라서 피부 반응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 하여 주위 환경에 원인 물질이 없다고 단정 할 수 없으므로 환자와 보호자는 생활 주변 환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여 주어야 한다.

(5)혈중 특이 면역글로불린 E검사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에 반응을 보이는 원인 물질에 대한 면역글로불린 E가 혈중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검사이다. 양성결과가 나오면 천식의 원인 물질로 증명이 된다. 너무 나이가 어린 환자나 피부 질환으로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원인 물질을 찾는 일차적 검사로 사용된다.

(6)항원 유발검사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으나 병력에서는 천식의 원인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병력에서는 뚜렷하나 알레르기 피부반응검사에 반응을 안보인 물질이 천식의 원인이 되는가를 밝히는 중요한 검사이다. 원인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흡입하여 천식의 증상과 폐기능 감소가 오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복잡하며, 위험이 있어 응급처치가 가능한 시설에서 알레르기 천식 전문의사의 감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7) 기타 세부 검사

천식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심장 질환이나 다른 폐 질환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엑스선 촬영이 필요하다. 천식 환자 중 많은 수에서 비염이나 부비동염이 함께 나타나므로, 코의 엑스선 촬영사진도 필요하다. 객담검사는 천식환자의 객담을 현미경으로 보고 객담내에 있는 알레르기 염증세포를 직접 관찰하는 검사이다. 기관지 내시경검사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천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폐암이나, 기관지 결핵처럼 기도가 막히는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시행하는 검사이다.

기관지천식으로 진단되는 환자 대부분이 '평생 약을 먹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한다. 분명히 천식은 단시간내 치료되는 질환은 아니다. 그렇다고 평생 천식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거나 약을 먹어야 하는 질환도 아니다. 천식은 어떤 좋은 묘약으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 환자가 질환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조절을 잘하면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질환이다. ¶

